

“위안부 문제, 우리시대 화두”

나눔의집, 2008 만남의날 개최

부처님의 자비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어 온 나눔의집(원장 원행)이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08 만남의날’을 개최했다.

‘2008 만남의날’은 한해 나눔의집 활동을 보고하고 후원자 등 대중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 부원장 승연 스님, 김순옥, 김화선 등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 5명을 비롯해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이종연 변호사, 나눔의집을 돕는 국제교 연합회 학생 등 후원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2004년부터 나눔의집 방문프로그램으로 일본 학생을 비롯한 외국학생에게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주한외교사교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80년대 200여 명이었던 할머니들이 100년



나눔의집 할머니들이 작전여교 학생들이 만든 종이학 등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이 진정한 참회로 답할 때”라고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보상책을 촉구했다.

축사에 이어 상영된 나눔의집 2008 활동영상에서는 한해 활동보고와 12월 5일 작고하신 허 한도순 할머니를 비롯한 올해 작고한 할머니들 영상이 상영돼 좌중의 숙연함을 자아냈다.

활동영상 이후 윤연모 교사(서라벌고)의 ‘조선의 꽃이 아니었다면’ 시낭송과 노래, 나눔의집방문 프로그램 담당하는 원어민교사회 스텝 소개, 연합회 소속 고등학생들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됐고, 또 인천직전여교 학생들의 마음을 담은 종이학 등 선물이 전달됐다.

1부 행사에 이어 김동원 감독의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끝나지 않은 전쟁(63 years on)’이 상영됐고, 다과회 등이 진행됐다. (031)768-0064 후한 나눔의집눔 163-01-407551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동국대병원으로 간 108산사 순례기도 “선록해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 제28차 순례가 12월 11~13일 일산 동국대병원과 불암산 불암사에서 진행됐다. 연인원 5천여 명이 동참한 이번 순례는 연말을 맞아 동국대병원을 방문, 환자들의 쾌유와 병원의 발전을 기원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사진은 병실을 찾은 선록해자 스님이 환자를 위로하는 모습. 임연태 기자

“종교차별금지 세계적 추세”

연등회,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 해소 위한 토론회

“종교적 자유 보장을 위한 종교차별금지 세계적 추세다. 종교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김행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민주당 국회의원 불자모임 연등회(회장 최문순) 주최로 12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종교차별행위금지 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발제에서 “캐나다 인권법, 뉴질랜드 인권법, 영국 괴롭힘 보호법,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 위원회법 등은 종교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종교편향 등의 이유로 예수가 등장하는 연극을 공연하거나 ‘크리스마스’ ‘예수’라는 용어가 들어간 캐럴을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 조항의 직접적용은 대상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등도 권력 자체에서 비롯해 행해지는 종교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며 종교차별행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석원 변호사(조계종 총무원 법무전문위원)는 ‘전통문화진흥을 위한 토론’을 발제했다. 정 변호사

는 “건축·토목기술의 발달로 산악지역 개발이 가속돼 1990~2006년에 전통사찰 환경침해사태가 123건이나 발생했다”며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법규정과 전통사찰의 불사를 제한하는 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통사찰은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향유의 공간 △수려한 자연환경 보호를 통한 역사·문화 환경 조성 △지역사회 문화 활동의 거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보선 스님, 민주당 정세균 대표, 강정일 의원(민주당),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지관 스님, 박광서 공동대표(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성 기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비교불교학 협동과정 신설

인문학, 지역학, 예술학 등과 연계해 불교학을 연구하는 과정이 동국대에 개설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 이하 불문연)은 12월 17~19일 비교불교학 협동과정 신입생(석사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교불교학 협동과정은 불문연이 ‘아시아 근현대 불교문화연구’를 주제로 수행중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됐다.

박인성 원장은 “비교불교학 협동과정은 문화콘텐츠, 영상·대중문화, 미디어, 심리학, 미학 등과 연계해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아시아 문화속에서 불교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고 불교 관련 학술연구, 언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우수한 인재양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02)2260-8507 조동섭 기자

“MB정부, 환경운동 껌뻌 STOP!”

지울 스님,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및 정부 상대 명예훼손 소송

MB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과 국립공원법 개정을 통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등 반복적성장 정책이 불타기식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천성산 지킴이’ 지울 스님(사진)이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경고를 보냈다.

지울 스님은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정부를 상대로 각각 1억원 명예훼손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7월 25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에서 “대한민국 좌표”에 “결림돌-실익은 민주화의 적폐, 천성산 터널 지역 손실 2조 5161억원”이라고 명시하고 “환경이 모든 것에 앞서야 한다. 반미가 모든 가치보다 우월하다”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도룡뇽을 보호하기 위해 2조 5000억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도룡뇽과 말이 통한다면 공사기간 동안 집단이주비를 쥐어주는 게 좋았을 것”이

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울 스님은 “허위 사실로 천성산 문제의 진실과 의미를 왜곡한 편협하고, 악의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 및 인격을 심대하게 모욕했다”고 소송사유를 밝혔다.

지울 스님은 “천성산 공사는 2009년 4월이 계약상 완료시기로 손해추산한 2008년 12월 완공예정인 정부측에서 공사진척현황으로 5개월 정도 앞당겨 계산한 것”이라며 “이로 추산한 공사지연 손해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설명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해 6개월 동안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액은 시공업체가 입은 145억원에 불과하다”며 “대운하 문제 등에 현 정부가 사색산과 천성산 문제를 개발불한다면 공사기간 동안 집단이주비를 쥐어주는 게 좋았을 것”이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완화 불개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 9일 긴급토론

환경부가 12월 5일 발표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완화 가이드라인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해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12월 9일 서울 한국건강연대에서 ‘자연공원 내 로프웨이 가이드라인, 자연공원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각계의 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양양지역 주민 50여 명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환경단

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울대 윤여창 교수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기준의 완화는 등산객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생태계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현행 2km보존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경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은 “케이블카를 관광수단으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서도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경제 부흥은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2008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소설가 조정래씨 등 선정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순표)는 12월 11일 소피텔에서 열린 ‘동국의 밤’ 행사에서 조정래씨 등에게 2008 자랑스런 동국인상을 수여했다.

현재 동국대 석좌교수인 소설가 조정래 씨는 동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태백산맥> <아리랑> 등

다수의 작품을 집필했다.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은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노동부 장관, 2002월드컵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준형 신라교역 회장은 전경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수월관음도 | 고려 1310년, 419.5cm x 254.2cm, 일본 경신사(鏡神寺) 소장.

유 흥 준 전 문화재청장 초청 공개 특 강

아! 아름다워라. 고려불화여!

2008년 12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봉은사 보우당 · 강사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부처님 법을 수호한다는 신념으로 올 여름 뜨겁게 달구진 서울시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하나된 불심을 보여 주신 불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매웠던 불자님들의 열원은 이루지 못한 채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상심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연말을 맞아 봉은사에서 특별한 문화 강화를 준비했습니다.

12월 25일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을 초청하여 <아! 아름다워라. 고려불화여!>라는 주제로 공개특강을 개최합니다. 고려불화는 세계 불교회화사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불교 예술의 자랑이자 긍지입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등의 저서를 통해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었던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이 구수하면서 도해박한 입담으로 강의하는 이번 특강을 통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 약력 1949년 서울 출생 | 1980년 서울대 미학과 졸업 | 1984년 민족미술협회 공동대표 | 1991년 영남대 회화과 교수 및 영남대 박물관 관장 | 2002년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 2004년 문화재청장 |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 <정직한 관객> <나의 북한문화유산 답사기> <화인열전> <완당평전> 등이 있다.

